

天 上 人 一 一

朝鮮

二
月
號

大正六年十月十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八年二月十五日發行(每月一回十五日發行)

第百八十四號

△寄稿歡迎▽

種 類

- 一、論文 (産業、社會、教育、宗教、地方行政等に關한 것)
- 一、史談、傳記、模範村紹介
- 一、感想文、紀行文、隨筆
- 一、民謡・童謡 (創作이나傳來하는 것)
- 一、詩、詩調、漢詩
- 一、短篇小說

◎投稿注意事項◎

期 限 每月十五日

用 紙 반다시原稿用紙를使用할일

◇誌上匿名은無妨하나原稿에는반드시第一頁右端에住所姓名을明記할일

◇誌上掲載與否의權과添削權은編輯室에在하고 原稿은一切返還치안아함

◇原稿은朝鮮總督官房文書課「朝鮮」編輯室로付送할일

本月號定價金十五錢

(郵稅一錢)

本定價表

冊數 定價 郵稅
一冊 十五錢 一錢
一箇年 一圓八十錢 不要

但臨時增大號를發行할時는定價의倍額

□注文은一切販賣所로할일

□送金은振替口座京城四〇番을利用함이便利함

□注文은先金에限함

廣 告 料

等級 一頁 半頁
一 等 二十圓 十二圓
二 等 十五圓 八圓
▲種類에依하여掲載를謝絶함도있음
▲申込은一切朝鮮印刷株式會社로할일

昭和八年二月十三日印刷
昭和八年二月十五日發行

發行人 朝鮮總督官房文書課長

發行所 朝鮮總督府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十二番地

印刷所 朝鮮印刷株式會社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十二番地

販賣所 朝鮮印刷株式會社

電話本局

振替口座京城四〇番
四一三〇番
四一三一番
四一三二番

昭和七年四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
及所屬官署

職員錄

定價金八拾錢

荷造送料貳拾五錢

今般本府より發賣許可相成候右職員錄は最も移動多き三月までの各部課の所屬員を整理し四月一日現在を輯録被致候ものにて目下配本中に付此際至急御申込願度此段奉懇願候追て別に賣捌所を設けざるに付直接當社へ御申込相成度候官公署以外は前金御拂込相願度振替貯金口座京城四〇番御利用被成下候は、御便宜と奉存候

昭和七年六月

京城府蓬萊町三ノ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電本二三〇・四一三一・四一三二
振替口座京城四〇番

古典刊行會發行部に文學

三國史記

和装一部九冊
金貳拾圓也

三國史が朝鮮上古史研究上の重要價值又其の寶典價值に付ては茲に喋るを要せざる處なるも本書は存在せる原本中の最も正確なる然かも最も古典價值を有する慶州李氏所藏の原本に付之を印影したるものにして其の大きさ及裝釘共に原本に等しく内容に付ては一點一劃の加除改削を行はず原本の缺字其の他に就ては京城帝國大學教授文學博士今西龍先生の註釋を添へたり從來出版せられたる活字本等と其の價值同日の比にあらず。史學家愛書家の唾垂涎措かざる處の珍書なり。

京城府蓬萊町三ノ六二・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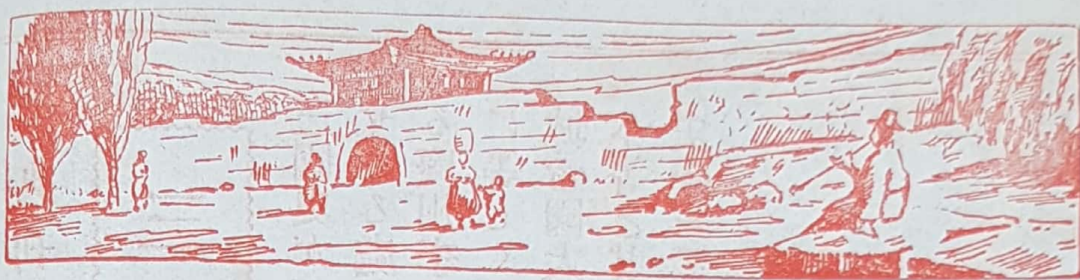
朝鮮印刷株式會社

電話本局二三〇・四一三一・四四一三三番

振替口座 京城四〇番

三國史記

第一分冊 第二分冊 第三分冊 第四分冊 第五分冊 第六分冊 第七分冊 第八分冊 第九分冊



朝鮮「조선」

第十七卷

第二號

目次

「第百八十四號」

口

◇內鮮連絡電話開通式

◇俗離山の殘雪

刑事補償法規에對하야

法務局長：笠井健太郎（一）

民有林指導方針에就하야

農林局長：渡邊忍（三）

鑛業令施行規則의改正에對하야

殖産局長：穗積眞六郎（五）

自力更生은 무엇인가

社會課長：俞萬兼（九）

農村救濟와自力更生

金海郡守：黃德純（一五）

卒業生指導에關한二三의考察

總督府囑託：八尋生男（一八）

岡山縣馬屋上村을視察하고

忠清北道知事：南宮營（二〇）

닭에關한朝鮮의傳說과習俗

總督府囑託：村山智順（二六）

茶의傳來

貼貝房之進（三）

三國時代の文學

安廓（四）



向上向下的道	金泰洽 (五八)
統計實務概要	河鍾九 (六三)
◇自力更生과希望의癸酉年	鄭道鉉 (六八)
◇西將臺下の때바위 (傳說)	權大慶 (六九)
民有林指導方針大綱	(七一)
昭和八年度의本府特別會計豫算綱要	(七九)

文苑	◇詩 ◇童謠 ◇民謠 ◇漢詩	(八七)
----	----------------	------

庭科學	李永憲 (九〇)
類의創生	醫學士許達 (九四)
譯三國誌	裴相哲 (九八)
昏의再夢	全萱植 (一〇三)

雜報

昭和八年度朝鮮簡易保險積立金貸付內定◇道會議員定數道別新舊比較◇昨年間本府活動寫眞狀況◇內鮮連絡電話開通式◇鹽田擴張五個年計畫◇第一回朝鮮米穀調查委員會◇慶州에서發見된珍奇한一墳多柳塚◇朝鮮人勞働者를要望하는天圖線改築工事◇稚蠶共同飼育과柞蠶狀況◇高齡者가만호濟州島◇聖旨・令旨傳達式◇恩賜眞綿傳達式……………(一一〇)

朝鮮總督府遞信局編纂

最新版

メートル法を以て改版せる

昭和六年十月十六日現在

遞信地圖

荷造 金壹圓貳拾錢
送料共

遞信事業は近來著しき進歩と劃制がありまして本新版圖は全く面目を一新致しました加之昭和六年八月一日より諸種の計算は必ず『メートル法』を以て算定する事と相成たるに付本新版圖は全部メートル法により改彫製版致しました最初期の地圖であります。

遞信地圖は各種事業の計畫旅費算出若しくは旅行者に其の他各般の參考資料として必須なる基本圖であります。まして従つて本新版圖は官公署は勿論各種各般の事業家に於ては是非一本を供へざるべからざるものと信じます。弊社今般特に一般に發賣するの許可を得ましたので此際至急御申込を願ひます。

各種印刷

印刷諸材料

圖書出版



朝鮮印刷株式會社

朝鮮京城府蓬萊町三丁目 六十二番地 六十三

電話本局二三〇・四一三一・長四一三二
振替口座京城四・〇〇〇
電略テイ又ハ(テ)

鷄에關한朝鮮의傳說과習俗

村山智順

鷄林의傳說

朝鮮을鷄林이라고부르는것은 옛날로부터널리알리워진것으로 그由來도여러분에게는 이미다아실줄알니다만은 그것은新羅의古都慶州에지금도옛날의자취를남긴名所의하나로되여잇는「鷄林」이란곳으로부터始作된것으로 그傳說을차키보면大凡다음과같은것입니다.

그鷄林이란古跡은 月城의西便에잇서 옛날에는始林이라고부르든곳으로 지금에는一町步쯤되는조그만場所에큰古木이鬱蒼히잇는데 그가운데鷄林의由來를손石碑가느곳이잇서鷄林의이야기는여기서부터始作된것입니다.

그것은먼옛날일입니다만은 新羅의第四世脫解王九年八月四日夜의일입니다. 當時의大臣의한사람이든瓠公이라는사람이 홀로月城의西便을 散步하고잇스려니까 意外로始林中에큰光明이나라나서 한을로부터紫雲이地上을네리덮흔것을

發見하였습니다. 瓠公은奇異하게생각하고갓가히가본즉 거기에는큰나무가잇고 나무가지에는 눈이부실만한黃金의櫃가달려잇습니다. 또그밑에는 흰닭이잇서서 연방울고잇습니다. 큰光明으로보인것은그櫃로부터한을로빠쳐오르는빛이엇습니다. 大臣은이것은尋常치안흔일이라생각하고卽時王에게로가서 그뜻을上奏하였습니다.

그래서王은 그것은怪常한일이다. 急히가서調査해보자하고 王自身이親히動駕하여 나무가지의櫃를나려열어본즉그속에서한사람의홀쳐한男子아이가나왔습니다. 王은대단히깃버하야 그것은한을로부터自己에게뒤를이을사람을나려주신것이를넘었다하고 守護衛해가지고王城으로돌아갔습니다. 國王은그뒤에吉日을擇하야 한을로부터받은아들로太子를삼고 瓠公에게命하야貴重하게養育시켰는데 이사람이金闕智라고부르는 慶州金氏의始祖로 後에는新羅의王이되엇습니다.

이러한緣由로이수풀을鷄林이라고불르고 國號까지도鷄林이라고곳치게되었다는것입니다。그래서金閼智라함은金의아들이란것으로 黃金의箱子로부터나온어린애라는意味로부터친일홍입니다。

이것이 朝鮮을鷄林이라고불르게된由來입니다만은 朝鮮에는이밖에도有名한傳說의하나로 羽衣傳說이라는것이잇스나 이羽衣傳說에도鷄林에關聯된朝鮮의「로」갈카라」답게 亦是닭에關係되어잇는것은興味잇는일입니다。

鷄와羽衣傳說

一、一頭의 鹿

지금羽衣傳說의概略을말할것같으면 옛날어느곳에 젊은사람하나가 그어머니와 단들이살고잇었는데 나이가三十多도록獨身이엇습니다。엇던날 自己의職業이나무를하려고 山으로올라가는데 사슴한마리가무엇에겐지쫓겨서 이 젊은사람에게로달려오며「제발 나를살려주십시오」하고가엾은모양을하고嘆願함으로 젊은사람은 불쌍하게생각하고 사슴을비어낸나무속에다가감추어주엇습니다。그러자차便에 사한사람의獵師가 숨이턱에다어서 달려와서는「사슴이아리로달려왔는데 너는보았겠지」하고 젊은사람에게물엇습

니다。젊은사람은「보기는보았지만 그사슴은벌써커편으로여간빠르지안케뛰어가버렸다」하고 마진便의山을가르치며對答하엿슴으로 獵師는그便으로急히달려갔습니다。

獵師가보이지안케되엿을때에 젊은사람은사슴을내려논즉 사슴은여간깃버하지안흐며「나는이山의神의使者인사슴인데 오늘놀러나와다가君獵師에게發見되어 生命이危殆할지경이엇스나 當신의德澤으로살엿습니다。이러케깃븐일은업습니다。무엇으로든지恩惠를갑혀야할터인데 무슨所願이업습니까」함으로 젊은사람은暫時생각해보다가조급뒤에「그다지所願되는것은업스나 우리어머니도대단히늙으셨고 내가山으로나무를하러올때에는 어머니를모시고잇습사람이업서서 困難하다。그러니내가장가들을게해주면더조흔일은업겟다」라고하엿습니다。

이말을들은사슴은「그것은 아조어렵지만흔일입니다。그럼이러케하십시오。이山을어되까지든지올라가면 커다란연못(池)이잇습니다。그연못은한울로부터나려온天女들이沐浴을하는연못이니 當신은그리로가서天女들이나려와沐浴을하거든 그中한사람의옷을 감추어두시오。그러케하면그天女가沐浴을다하고 한울로올러가려고하여도옷이업서서날르지 못하니까대단히애를쓸것입니다。그때에當신이그天女와잘

야야가를해서집으로다리고가시오. 그러나그天女는옷만앞으
면금새한울로올라갈것이니 決코보여서는아니됩니다. 萬一
반드시보내지안할수업는境遇가잇거든 어린애를四兄弟나
흔뒀가아니면아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세사람까지면두아이
는 량쪽저드랑이에끼고 한아이는 다리사이에다가끼고날
려서도망을갈수잇지만 하나라도남겨두고는母親은決斷코떠
나지는안할터이니까...」라고 여러가지로 아르켜주었
습니다.

二、 그 羽衣

그래서젊은樵夫는 사승이아르켜준대로山에올라가서 연
못으로가본즉 마침껏사람의天女가밤아벗고沐浴을하고잇는
中이라 近處를돌아다니며본즉 바위우에흰비단과같은아름
다운天女の羽衣를버서논것이잇슴으로 그는그中에서도가장
홀췌한것으로一襲을가지고 바위그늘에숨어잇섯습니다. 未
久에天女들은연못에서나와 케옷을차켜입고올라갔스나 한
사람의天女는케羽衣가업슴으로 엇지할줄을모르고 徘徊하
고잇스려니까 바위그늘로부터「옷은내가가지고있다」라고
젊은사람이말하엿습니다. 그런즉「케발들려보내주십시오」
라고 嘆願하엿스나 젊은사람은「내색시가되면들려보내주

마」하고 듯지안으므로 天女도하는수업시젊은사람의집으
로걸려가서 드되어夫婦가되엿습니다. 歲月은流水갈려서 그들사이에
는별서어린애가셋이나생겼
습니다. 夫婦間에도매우和睦하고 그동안에안해는한번도옷
아야기를하는일이업슴으로 樵夫도安心하고 羽衣의생각은
아조이켜버렸습니다. 어느날안해인天女는樵夫에게술을勸하
면서「우리들사이에별서아들을셋이나나엿습니다. 내가취
음에당신에게왔슬씨는 한울로올라가고심혀전달수가업섯스
나 지금와서는人間世上이도리혀초와섯습니다. 그런데내가
그때입엇든羽衣는엇지나되엇는지 생각할수록옛날이그리워
지니잠간만보여줄지요」하고 無心코말을함으로樵夫는술이
얼근히醉한김에 사승이아르켜준것은감박이커버리고 커를
背叛하고어되로갈理도萬無하리라고밧고잇섯슴으로 지금까
지감쪽같이감추어두엇든 羽衣를꺼내서 안해에게주엇습니
다. 그런즉天女는羽衣가手中에들자마자 그瞬間에젓헤잇든
두아들을량엽헤꺼안고 케일적은어린애는 다리사이에끼고
슬적한울로날려올라가버렸습니니다.

三、 夫 婦 再 會

樵夫는다시홀아비가되어 쓸々히不幸한身勢를생각하고는

나무를 하고 잇스려나 가어 느날은 前에 살려 보낸 사슴이 차키와
서 「그러게悲觀할 것이 업시 다시 한번 그 연못으로 가보시요.
그일이잇는뒤로天女들은그연못에와沐浴을하지안엇지만 그
代身으로한을로부터그연못으로瓶을달아나려서 그연못의물
을갈어들려沐浴을하기로되어잇스니 當신은그瓶의물을업질
르고 그속에들어안지면한을로라갈수도잇고 妻子를맛나
볼수도잇을것입니다」라고 가르켜주엇슴으로 樵夫는그대
로한즉 果然한을로올러가서妻子와相逢하고 다시질겁게지
낼수가잇게되었슴니다.

樵夫는그리하여天上에서每日珍味만먹고조흔옷만입고 열
마동안은아모걱정이업시지내엇스나 어느날은다만한분인어
머니를 남겨두고온생각을하고 불현듯이어머니가보고십허
서 엇딴케하든지다시한번어머니에게로돌아가고커 안해와
議論한즉 안해는再三말니면서 「萬一당신이 한번地上으로
돌아만가면 다시돌아오지는못할것이오」하엿스나 樵夫는
「곳다녀올터이니 제발한번만下界로나려가게해주시오」라
고함으로 안해도하는수업시 「그러면한을의龍馬를빌려줄터
이니 그것을라고가십시요. 얼마아니하여地上으로나려갈수
가잇스나 그러나萬一당신이발하나라도 땅을밟기만하면永
遠히天上으로돌아오지는못할터이니 무슨일이잇든지반드시

馬上에안커서 決斷코땅을밟어서는안됩니다」라고 몇번이
나注意를식혔슴니다.

四、樵夫가雄鷄로

樵夫는그말을한즉 瞬息間에어머니의집까지到着이되었스
나 어머니는오래간만에아들을맛나서 대단히반가워하며여
러가지이야기를하고잇섯슴니다. 그는어머니에게 「나는다시
한을로올라가갓슴니다」하고 作別을告한즉 어머니는말니
면서 「너를먹이려고 몇처럼호박죽을그렸스니 한그릇만먹
고가거라」하고勸함으로 어머니의好意를막을수업시서 죽
그릇을말우에서벗어가지고 먹으려고하엿슴니다. 그런데그
그릇은급히그린죽을담엇기때문에 대단히뜨거워서 樵夫는
밧구어잡으려고하다가 잘못해서그뜨거운죽그릇을말의등우
에떠트렸슴니다. 그런데天馬는깜짝놀라서 훌쩍뛰어올르
는바람에 樵夫는말에서떨어지면서할수업시 흙을밟엿슴니
다. 뛰어들른말은 그대로한을넘히살어지고말엿슴니다.

말을땅에부친樵夫는 다시는한을로올러갈수가업게되었슴
으로 그는每日밧그로나가서는 한을을치어다보면서 妻子
가엇더케하고잇는가하고嘆息하며 울고잇섯슴니다. 그러다
가그대로죽어버렸는데 다시금한을로올라가고커하는願念을

成就하기爲해서 그는雄鷄로還生한것입니다.

이雄鷄로還生한것이非常히興味있는것인데 여러분도아시는바와같이 朝鮮의草家집옹우에서雄鷄가울고있는것을 혼히볼수있는데 집옹우로雄鷄가올라가쉬우는것은 天女를일허버린樵夫의魂의雄鷄가되었으므로 그래서될수있는대로좁흔곳에올라가서 한울을올어려子息을부르기爲한것이라고합니다.

鷄에依한占呪

以上은담에關한傳說의一・二이나 現在담에對하야朝鮮民間에널리퍼진 習俗의한두가지를들어보기로합니다.

正月十五日아침 밤이밝기前에 鷄鳴聲을듯고 그數를헤쳐서 밤이밝기前에十回以上일것같은면 그해는豐年이라고해서 깃버하는風習이各地方에잇습니다.

또담이夜半에올면 그집에災禍가생긴다고하나 그런境遇에는卽時그담의목을잘라서 당속에집히와뭇으면災難을免할수가있다고합니다. 밤중에雄鷄가우는것은 災禍의前兆라는것은 日本内地의風習과도꼭같은데 滋味잇는것은 雄鷄가알을나흐면 非常한幸福이온다고 크게깃버하는風習이잇는것입니다. 이것은될수없는일이된다는가담으로 말미암은것인지도모릅니다.

다음은담의時勢가오르고나리는것을보려고占치는方法입니다. 그것은집에서치는담이 일즉암치 해가떨어지기도前에

담장으로들어가면時勢가떨어지고 밤까지담장으로들어가지안흐면 時勢가올라간다는것입니다. 또는그와反對로 일즉이담장으로들어가갈때에는 米價가올르고 늦게들어가면 米價가떨어진다고 占을쳐보는風習도各地方에잇습니다.

그리고담으로占을치는 한두가지興味잇는일은 溺死者가잇슬境遇에 그溺死者가이미成佛이되었는가 또는怨念이집흔가를알기爲해서 담을使用할때가잇습니다. 그때에는 溺死者가잇엇든水中에 담을산채로묵거치던지고 暫間잇다가꺼내어보고 萬一그담이죽엇슬것가트면 溺死者는이미成佛이되어 怨恨을품지안헛고 그담이죽지안헛슬것같은면溺死者의魂은 아직極樂에가지못하고 그대로남어잇다. 그럼으로萬若그대로내버려둘것같은면 이怨恨을품은魂魄은永久히그대로남어잇서 뒤를나어溺死者를떨어드린다는것입니다.

다음은예방(呪禁)을하는것인데 이것도亦是溺死者의境遇입니다. 溺死者가男子이면雄鷄 女子면雌鷄를한마리씩묵거치 산채로溺死者가잇든水中에집어던지는것입니다. 그러면그뒤에 그자리에서다른溺死者가 생기지안는다는것입니다.

그리고또溺死者가잇슬때에 그死體가어머잇는지알수없을때는담을묵거치 물속에던지면그담이주둥이로 溺死者의머리털을물고나온다고도하고 그때문에溺死者가어머잇는지를發見하기爲해서 담을使用하기도합니다. (談速記)